

기본급 184,900원 인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지부교섭 속보

8호

2023.06.22(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11차 지부교섭_ 교섭결렬]

결국 제시안 없이 결렬!

11차 교섭만에 결렬

지부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6월 22일(목) 한국 JCC에서 열린 11차 지부교섭은 사측의 추가 제시안 없이 끝났다. 지부교섭은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조정기간과 7월 총파업 투쟁 등을 거쳐 7월 둘째주 정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차례 제시안, 한참 부족하다

11차 교섭까지 오는 동안 사측은 2차례에 걸쳐 제시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요구안 7가지 중 2가지에 대해서만 제출했을 뿐 나머지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임금성 요구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 노동개악 저지, 중대재해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시간만 끌면서 지부교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7월 총파업으로 간다!

금속노조는 6월 30일(금)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하고 7월 4일(화)~6일(목)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정기간에도 교섭 진전이 없다면 7월 12일(수)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7월 총파업은 2023년 임금인상 쟁취 투쟁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경제는 저성장, 물가는 고물가인 시대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6/22(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최저임금 올리고! 금속노조 순회투쟁단



11차 교섭 속기록

날씨도 더운데 교섭이 너무 답답하다

사 : 벌써 11차 교섭이다. 사측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2차 제시안까지 제시했다. 임금제시안은 각사별로 논의하고 있고 공동제시안도 최선을 다해서 제시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제시안 마련하겠다.

노 : 중앙교섭이 화요일에 9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했다. 대전충북지부 집단교섭에서는 지난 교섭에서 안을 일괄 제출해달라고 했다. 오늘도 실무 통해 확인하니 안을 제시하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다. 처음부터 올해 요구안 어렵지 않다고 했다. 중앙 눈치 보지말고 지역에서 먼저 의견접근하자고 했다. 11차 교섭까지 의미 없는 교섭이 됐다. 사측이 2차례 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남은 내용이 너무 많다. 각 회사들끼리 아직도 의견 모으지 못했다는건 너무 답답하다. 날씨가 엇그제도 35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면 기후위기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 각 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 의미있는 것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게 너무 답답하다. 오늘도 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는데 더 이상 할말 없다. 오늘 제시할 안 없는건가?

사 : 그렇다.

노 : 회사측은 매년 교섭하면서 중앙교섭 결렬되면 지부교섭도 결렬하고 조정 들어가면 7월에 파업할테고 그 후에 타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 오늘 결렬될 상황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논의가 재개될 때는 충분히 고민한 안을 내야 된다. 7월 13일 정도에 재개될텐데 그때는 충분히 고민해서 제출하면 좋겠다. 작년에 12차 교섭에서 의견접근했는데 오늘 11차 교섭이면 많이 교섭한 것이다. 아마 사측도 내부적으로 안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결렬되더라도 교섭 재개되면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게 제출해달라. 임금도 제출해야 한다. 교섭장소에서 각 사별로 임금 협의할 시간 드리겠다. 각 사별 논의할 장소 확보를 위해 결렬 후 재개될 교섭은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자. 그 자리에서 임금인상안도 제출해달라. 다음 교섭에서는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

*** 6/22(목) 교섭결렬**

*** 차기교섭은 실무협의 통해 결정**